

이슈브리핑 vol.326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전북 관광정책, 빅데이터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자!

연구책임

김수지 연구위원

연구진

김형오 선임연구위원

요약

빅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 지역관광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시성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행동기반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음
-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은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체류시간, 동선구조, 관광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재해석하고, 정책을 재설계하는 핵심수단으로 전북 역시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전북 관광지 네트워크 : 관광네트워크 핵심 거점과 주변부

- 전북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연결중심성이 높은 관광거점을 다수 보유한 몇몇 시군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네트워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 이 지역들은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경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반면, 연결중심성이 낮아 연계성이 취약한 지역들도 확인됨. 이 지역들은 중심관광 거점이 부족하여, 독립적인 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단일 목적지로서도 경쟁력도 제한적인 상황임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이동편의성 강화, 독립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이 강구되어야 함

전북 관광객 이동패턴 : 단일 시군 방문 집중형 관광 이동

- 전북 지역의 관광 이동은 동일 시군 내 관광지 간 이동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광활동이 단일 시군 방문 집중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지역 간 연계관광 부족은 장거리 동선이나 1박 2일 이상의 코스로 이어지지 못해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는 관광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로막아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 지역 간 연계관광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핵심과제

- 첫째, 관광객의 방문 목적, 이동 경로, 체류시간, 소비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둘째, 도내 주요 축제 및 상권의 방문객 흐름, 소비 패턴, SNS 확산 효과, 숙박·교통 연계성 등을 통합 분석할 전북형 지역축제·골목상권 연계형 빅데이터 활용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 조성, 모바일 기반의 관광형 통합교통패스(Transit & Tourism Pass) 등 시·군 연계형 교통-관광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형 관광교통 혁신이 필요함

키워드 관광빅데이터 활용, 전북 관광지 네트워크, 전북 관광객 이동패턴

I 빅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 ‘통계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행동기반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확산

- 여전히 설문조사는 관광객의 인식, 태도, 만족도 등과 같은 정성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응답률 하락, 비용 증가, 시간 소요 등 데이터 수집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관광객의 실제 이동동선이나 지역 간 연계 흐름을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대안적 자료로 내비게이션, 이동통신, 카드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 관광행동을 진단하는 행동기반 빅데이터 분석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부터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관광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공공기관, 정책연구기관, 민간 등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설문조사 방식 및 빅데이터 방식 비교]

	설문조사 방식	빅데이터 방식
정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해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는 연구설계	방대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서 숨겨진 패턴, 추세, 관계 도출
설계 유무	특정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의도적 수집	조사 설계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짐

	설문조사 방식	빅데이터 방식
관측 규모	빅데이터에 비해 관측케이스가 제한적	대규모 관측케이스 확보 가능
변수 다양성	변수는 많고 관측치는 적은 구조	관측치는 많고 변수는 적은 구조
데이터 축적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설문설계, 배포, 회수 필요)	상대적으로 빠름(자동수집,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데이터 지속성	대부분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특정 시점 조사 중심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가능, 지속적, 누적 데이터로 시간 변화 추적 가능
자료수집 목적	특정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의도적 수집인과관계 탐색에 유리	탐색적 분석 중심인과 관계 해석에는 제약
오차 및 편향	응답편향, 비응답 오류, 표본 대표성 문제 등	선택 편향, 측정 오류, 데이터 소스의 불투명성

출처 : Johnson&Smith(2016)

- 지금까지 전북관광 통계는 주로 설문조사 방식에 기반하여 수집·분석되어 왔음. 그러나 전북관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시성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의 인식과 태도 뿐만 아니라 실제행동 및 이동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함으로써 지역관광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체류시간, 동선구조, 관광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의 중요성 대두

- 최근 여행의 목적이 단순 관람형에서 체류형·참여형으로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단일 목적지 중심 관광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관광수요가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관광객 이동패턴은 지역관광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지표로 작용될 수 있음
- 기존 관광 통계(입장객 수, 소비지출 등)는 개별 관광지의 방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어느 지역과 어떤 관광자원이 연계되어 방문되는지와 같은 실제 방문동선 등 관광객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반면, 관광객 이동패턴은 한 지점을 방문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얼마나 머무르는지, 어떤경로로 이동하는지, 지역 간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즉,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은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체류시간, 동선구조, 관광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재해석하고, 정책을 재설계하는 핵심수단으로 전북 역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행정, 법·제도 변화 속에서 필수적 요구로 정착

- 정부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5.16.)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수립·평가·집행 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의무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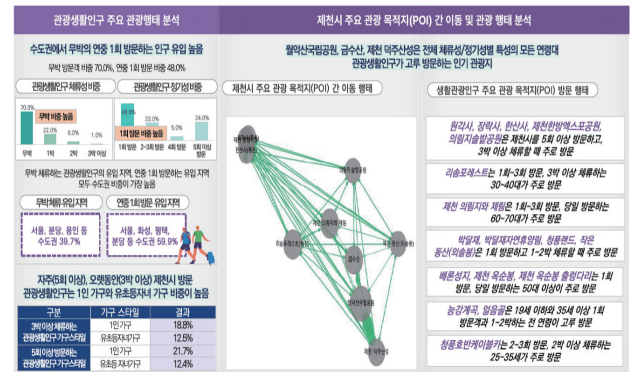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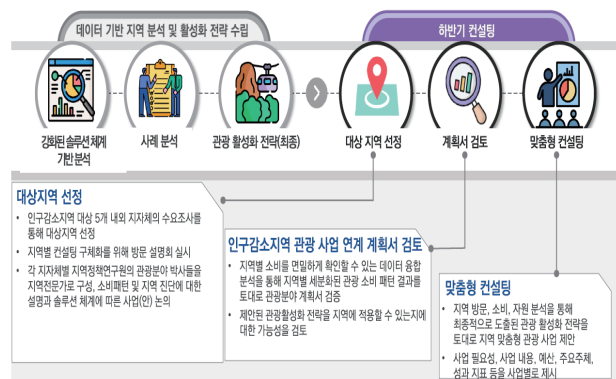
- 또한 공공정책의 분석과 의사결정에 민간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내비게이션 등 민간 빅데이터를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2020년에 마련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라인」을 2022년과 2024년 연이어 고도화하며 정부의 데이터기반 행정 방향과 연계된 관광분야 전문 지침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 특히, 2024년에는 내비게이션 및 소셜 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라인 정립·제시하여 행동기반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 이처럼 정부정책 추진환경이 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요 진단 및 과제 발굴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관광 행정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및 권역별 특화 관광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문화·자연환경·음식 등의 자원이 복합적으로 분포한 거점형 관광구조를 지니고 있어 행동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의 이동패턴 및 지역 간 연계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새로운 분석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진단 및 정책 발굴 사례를 검토하고, 빅데이터(T-map, KT POI 등)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진단 및 정책 발굴 사례

» 한국관광공사, 인구감소지역 대상 빅데이터 기반 관광진단 및 정책도출

-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관광분야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별 관광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공모사업은 내비게이션, 통신, 카드매출, SNS 언급량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관광객의 이동·소비·체류 등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지역 내 관광 흐름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관광정책 과제를 제시함
- 충청북도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데이터 활용 컨설팅」 2025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 ‘관광객은 많지만 소비 및 체류시간이 적은 도시’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핵심 관광현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지역 편의성 증대, 관광품질 개선, 지역로컬 브랜딩 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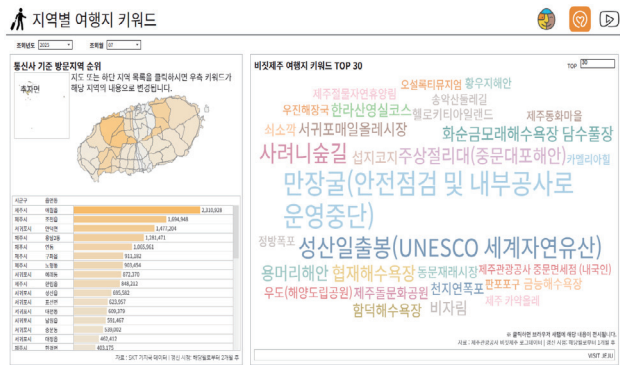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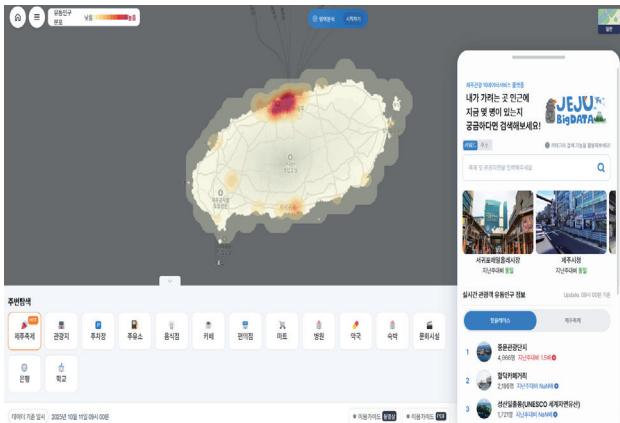
출처 : 한국관광공사(2025). 인구감소지역 대상 하반기 컨설팅 계획 및 컨설팅사례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 관광지 혼잡도 관리 및 체류시간 증대 전략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설문조사 중심의 관광통계를 극복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유동인구 분포 및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함
- 본 플랫폼은 성별·연령별 분포도를 5분 단위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를 관광객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분포도 서비스는 주요 관광 도로의 혼잡도를 제공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의 실시간 이동경로 및 체류 특성을 진단하고, 분산된 관광수요를 파악해 한적한 관광지나 시간대를 추천하는 등 관광지 연계 및 방문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함

전북 관광정책, 빅데이터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자!

-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발 거주지 분포를 시각화하여 지역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소비 트렌드를 파악해 체류시간 증가 및 관광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출처 :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https://data.ijto.or.kr/>)

» 서울시, 지역축제·골목상권 빅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서울시는 2025년 시·자치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294개 지역축제와 1,650개 지역골목상권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개발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 서울시의 '축제·행사 성과분석 모델'은 축제 기간과 영역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방문객 패턴, 매출 변화, 교통수단 이용 현황, 키워드 분석 등 데이터를 비교·분석하고 요약하여 시각적 형태로 제공함

- 이러한 분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제·행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축제 행사계획 및 홍보방안 수립, 성과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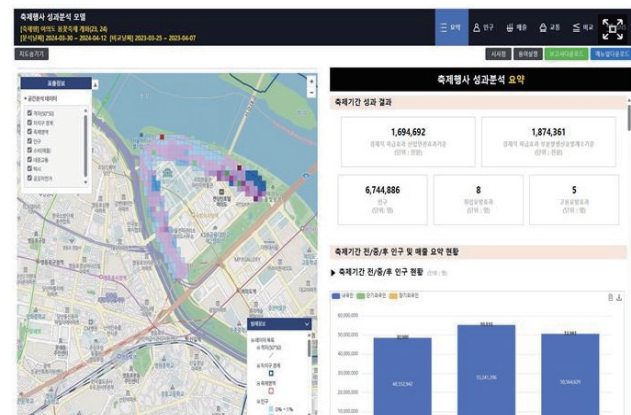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온라인 서비스란?

-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온라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표준화된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함-다.
- 분석 범위 등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자동분석 절차

- 01 분석모델 선택**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모델 선택
- 02 분석정보 입력**
분석명, 자치구, 분석기간 등 분석정보 입력
- 03 분석요청**
입력 정보에 대한 분석 요청 (분석요청 간수에 따라 대기 시간 발생 할 수 있음)
- 04 결과확인 및 활용**
분석 항목별 결과 확인 및 업무 자료 활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지 연계구조 분석

1. 분석개요

- 본 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빅데이터(T-map, KT POI 등)를 기반으로 관광지 네트워크 및 관광객 이동패턴을 파악하고자 함
- 데이터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T-map 검색 건수 및 KT POI(Point of Interest) 방문자 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¹⁾
- 분석은 1단계 T-map 검색 데이터 기반 관광수요분석, 2단계 KT POI 기반 관광행태분석, 3단계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²⁾ 및 OD(Origin-Destination) Data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및 이동패턴 분석의 단계로 진행됨

[관광지 연계구조 분석 단계]

분석단계	분석내용
1단계	T-map 검색 데이터 기반 관광수요분석
2단계	KT POI 기반 관광행태분석
3단계	연결중심성 및 OD Data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및 이동패턴 분석

참고 : 본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map, KT POI 등을 활용함. 데이터 특성상 일부 관광지나 이용자의 행태가 누락되거나 과대·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한국관광공사, 2024). 이에 본 분석의 결과는 전북 관광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의미를 가지며, 절대적 수치나 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1) T-map 데이터는 실제 방문여부의 확인은 어려우나, 지점 검색 건수 기반으로 잠재 수요와 관광 관심도 파악이 가능함. 반면, KT POI 데이터는 기반 위치 데이터로 실제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관광지 실 방문 수요 측정이 가능함(한국관광공사, 2024)
- 2) 연결중심성은 특정 관광지가 다른 관광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관광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 가능함. 관광지 간 연결 관계는 실제 관광객 이동 패턴을 기반으로 도출되며, 높을수록 관광객 흐름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3단계 연결중심성 및 OD Data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및 이동패턴 분석은 먼저,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을 통해 상위 관광지를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T-map OD Data를 활용해 주요 이동현황을 분석함
- 이후 1단계 T-map 검색 상위 관광지와 2단계 KT 방문자 상위 관광지를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및 주요 이동현황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한 후 이를 보조거점으로 추가하여 자료를 보완함

[관광지 연계구조 분석 단계 중 3단계 분석 방식]

분석단계	분석내용
3-1단계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실시 후 상위 관광지를 핵심 거점으로 설정
3-2단계	T-map OD Data를 활용해 주요 이동현황 분석
3-3단계	1단계 T-map 검색 상위 관광지와 2단계 KT 방문자 상위 관광지를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및 주요 이동현황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한 후 이를 보조거점으로 추가

2.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

» 관광분류별 연결중심성 분포 : 문화관광(24.0%) > 숙박(17.0%) > 자연관광(16.0%)

- 관광 분류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문화관광자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시설 간 연계 이동이 활발함을 시사함
-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관광자원(24.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숙박(17.0%), 자연관광(16.0%),

역사관광(14.0%) 순으로 나타남. 반면, 체험관광(3.0%)과 레저스포츠(4.0%)의 비중이 낮아 이들 분야의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연결중심성에 따른 지역 간 격차 : 관광네트워크 핵심 거점과 주변부

- 연결중심성이 높은 관광거점을 다수 보유한 몇몇 시군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네트워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
- 이 지역들은 문화자원, 자연자원, 숙박시설 등이 고르게 분포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경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특히 주요 관광거점의 경우, 사계절 안정적으로 연결중심성을 유지하며 연중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연결중심성이 낮아 전북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연계성이 취약한 지역들도 확인됨
- 이 지역들은 중심관광 거점이 부족하여, 독립적인 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단일 목적지로서의 경쟁력도 제한적인 상황임. 국립공원, 역사문화유산, 체험자원 등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부족 및 홍보 등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연결중심성이 낮다는 점은 단순히 관광거점이 부족하고, 관광객 수가 적다는 의미를 넘어 다른 관광지들과의 연계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즉, 개별적으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일지라도, 네트워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관광객의 연계 방문 및 소비 확장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이동편의성 강화, 독립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이 강구되어야 함

3.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

» 관광-음식-숙박 연계형 관광 패턴

- 관광지에서 출발한 이동의 목적지를 살펴보면, 관광지(44.8%)뿐만 아니라 음식점(38.3%), 숙박시설(16.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관광활동이 지역 내 음식 소비 및 숙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패턴이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관광-음식-숙박의 연계 패턴은 관광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전북이 보유한 전통음식 및 미식자원이 관광매력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숙박 연계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보여줌

» 단일 시군 방문 집중형 관광 이동 및 제한적 시군 연계

- 2024년 이동 데이터 382,929건 중 관광지 간 이동 80,415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의 관광 이동은 단일 시군 방문 집중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지역의 관광 이동은 동일 시군 내 관광지 간 이동이 62,976건(78.3%)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시군을 넘나드는 이동은 17,439건(21.7%)에 불과하여 관광활동이 단일 시군 방문 집중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지역 간 연계관광 부족은 연계된 장거리 동선이나 1박 2일 이상의 코스로 이어지지 못해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는 관광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로막아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낮추며, 스쳐가는 관광 형태를 띄는 한계를 보여주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지역 간 연계관광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시군 간 내부 이동량 격차와 관광 구조의 차이

- 일부 시군은 압도적인 내부 이동량을 보여 자체 완결적 관광 구조, 즉 자체적인 관광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예컨대, 해안관광자원이 풍부한 몇몇 시군들의 경우, 각각 1만 건이 넘는 시군 내부이동 또는 이동현황 중 70% 이상이 시군 내부이동으로 이루어져 지역 내 여러 관광지를 순환 연결하는 독립적 관광권역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내륙지역의 몇몇 시군의 경우, 낮은 내부 이동량을 보여 독립적 관광권역 형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어 인접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권역 편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시군별 이동현황 상위 5곳]

시군명	내부이동	비중(%)	시군간이동	비중(%)	총 이동
군산시	13,366	85.2	2,318	14.8	15,684
부안군	11,425	82.7	2,391	17.3	13,816
고창군	7,126	75.3	2,338	24.7	9,464
전주시 완산구	6,185	68.4	2,856	31.6	9,041
전주시 덕진구	3,912	61.2	2,478	38.8	6,390

참고 : 한국관광공사(2024)에서는 하위 행정구역 단위(예: 시/군/구) 방문자 수를 합하여 상위 행정구역 단위(예: 광역시/도) 방문자 수를 집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전주시의 완산구와 덕진구의 데이터를 임의로 합산·분석하지 않고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함

» 거점 관광지 중심의 방사형 이동과 선형 이동 패턴

- 주요 관광지 간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도심관광권에서는 거점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러 주변 관광지를 짧게 이동하는 방사형(Hub & Spoke) 방식의 이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예컨대, 도심관광권에서는 전통문화자원-시장-체험형 관광지를 이동하는 삼각 이동축이 형성되어 도심 관광 간 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해안관광권에서는 사찰-해안절경-해수욕장 등 해안선을 따라 선형으로 이어지는, 즉 지리적 축을 따라 선형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최다 이동 경로 상위 10]

순위	출발지	목적지	이동건수
1	전주동물원 (전주시 덕진구)	전주한옥마을 (전주시 완산구)	2,403
2	전주한옥마을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전주시 완산구)	1,761
3	내소사 (부안군)	채석강 (부안군)	720
4	남부시장 (전주시 완산구)	전주한옥마을 (전주시 완산구)	694
5	변산해수욕장 (부안군)	채석강 (부안군)	641
6	채석강 (부안군)	내소사 (부안군)	634
7	옥정호출렁다리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군)	508
8	상하농원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군)	494
9	옥정호 (임실군)	옥정호출렁다리 (임실군)	485
10	동호해수욕장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군)	452



정책제언

» (기반 구축)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의 이동행태와 체류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신, 카드, 내비게이션, SNS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회성 분석 중심으로 지속성과 정책 반영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시군별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유가 미흡하고, 분석인력과 예산이 제한되어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의 방문 의도, 체류시간, 이동패턴, 소비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 단위의 '관광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각 시·군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광역형 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러한 데이터 구축-공유-활용은 관광객 이동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특정 관광지 혹은 시간대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탐지 할 수 있게 하여, 관광객 분산 유도 및 축제 일정조정, 대체 관광지 홍보 등의 정책적 대응을 용이하게 함
-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려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확충이 필수적임. 민간데이터 구입, 데이터 분석 전문가 채용,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을 안정적으로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로의 확장) 전북형 지역축제·골목상권 연계형 빅데이터 활용 운영 체계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는 한해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지만, 현재는 성과 분석이 주로 관람객 수나 설문에 의존하여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부족함
- 이에 전북은 '전북형 지역축제·골목상권 빅데이터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주요 축제 및 상권의 방문객 흐름, 소비 패턴, SNS 확산 효과, 숙박·교통 연계성 등을 통합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서울시는 294개 지역축제와 1,650개 지역 골목상권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2025년 3월부터 공식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함
- 특히 통계청·카드사·통신사 데이터를 연계한 「서울 페스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축제별 경제파급효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정책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선진 모델을 제시함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군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지자체 및 지역상인에게 개방하는 '전북형 축제·상권 데이터 허브'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수기 상권지원 및 축제 일정 조정, 교통혼잡 완화 등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결 강화) 시·군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관광 연계체계 구축, 전북형 관광교통 혁신

-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결과, 전북 방문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군 간 이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 내 관광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이러한 교통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연계관광의 확산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관광 연계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이동축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한 권역 내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러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의 방향과도 부합함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관광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관광지 혼잡도·숙박현황 등을 연동 관리함으로써 단순한 접근성 개선을 넘어, 관광구조의 균형과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2025). “지역축제·골목상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오픈”. 디지털서울 소식(2025.3.4.).
- 제주관광공사. (2021). “UNWTO(세계관광기구),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를 코로나19 대응 스마트관광 대표사례로 주목.” 보도자료(2021.1.13.).
- 제주관광공사. (2023). “제주 관광 빅데이터 활용사례 해외 전파.” 보도자료(2023.6.9.).
- 한국관광공사. (2024). “2024 관광 빅데이터 분석·활용 가이드라인 고도화 연구.”
- 한국관광공사. (2025). “인구감소지역 대상 하반기 컨설팅 계획 및 컨설팅 사례 요약”.
- 행정안전부. (202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023.5.16.,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Johnson, T. P., & Smith, T. W. (2016). Big data and survey research: Supplement or substitute?. In Seeing cities through big data: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in urban informatics (pp. 113-125).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https://data.ijto.or.kr/>).
-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iSSUE BRIEFING

vol.326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